

7TH Daejeon Special FX Festival
2025. 11. 27 THU - 11. 29 SAT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페스티벌 가이드

F E S T I V A L G U I D E

축사

대한민국 특수영상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영화제를 준비해 주신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은학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화제를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후보작으로 영화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감독님, 기술진, 배우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의 경쟁력은 탁월한 스토리텔링만큼이나 뛰어난 특수영상 기술에서 비롯됩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특수영상 기술은 K-콘텐츠의 차별화된 강점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기도 합니다.

대전특수영상영화제는 특수영상 기술의 가치를 일찍부터 주목하여,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전문 영화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특수영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7년간 대전특수영상영화제가 특수영상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내외 영상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온 것처럼 대전광역시도 스튜디오 큐브, 대전액션영상센터 등 첨단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전 VFX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특수영상 선도 도시로 도약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는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영상 산업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수영상영화제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대전특수영상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창작자와 기술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그 과정과 노력들을 시민과 공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영상기술을 이끌어 온 특수영상 제작사와 테크니션들의 가치에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대전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적 성과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참여가 이 산업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 은 학

영화계의 위기론 속에서 영화를 위한 행사는
무척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이른 찬바람 속에도
대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영상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면서 보는 이들에게 시청각적 감각을 확장시켜주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동시에 창작자들에게는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올해 우리 영화제는 특별히 영상산업에서 혁신을 이룬 시대인 1970년대를 조명합니다. 특별히 제가 고른 작품인 스티븐 스피버그의 <미지와외 조우>는 영화 스크린을 통해 우주를 경험하게 하는 특수영상의 힘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상징적인 영화제 트레일러 영상은 100% AI로만 제작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화제가 배움과 재미가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영화의 훌륭한, 좋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화라는 '만들'을 배워나가면서 즐거움을 얻는 여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마술을 보며 신기해하고 그것을 배우게되면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2025년 11월

집행위원장 김 성 훈

미래 영상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 '특수영상' 특화 영화제, '특수영상거점도시' 대전에서 열린다

영상에서 특수효과는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면을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우리 영화제는 SFX, VFX, AI뿐 아니라 특수촬영, 분장, 미술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영상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 특수영상 산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국내 유일의 무대이다.

대전의 영상 인프라와 연계하여 첨단 영상 기술을 체험하는 축제. 영상과 기술, 인간이 만나는 총체적 경험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페스티벌 아이덴티티 Festival Identity

SLOGAN

환상 감각 속으로
Feel the Vision

시각적 감각을 온 몸으로 느끼고,
상상과 환상의 감각 속으로의 몰입

KEY CONCEPT

퓨처 레트로
Future Retro

컨셉기획
미디어아티스트 박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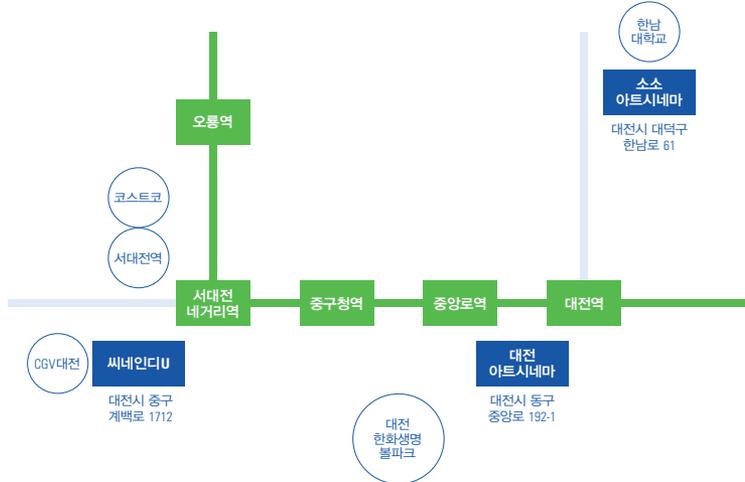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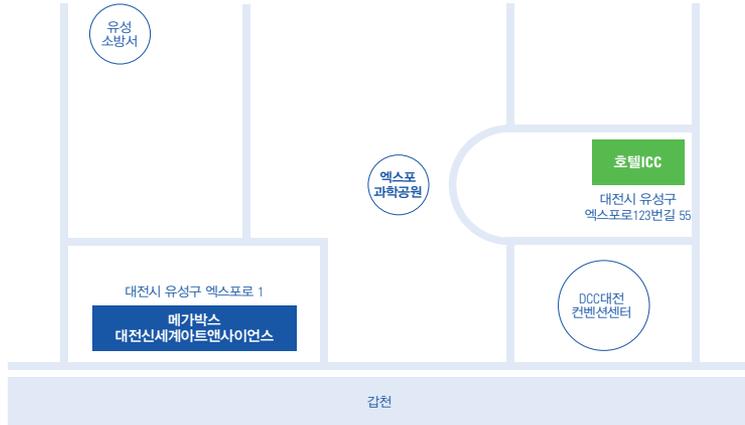
디자인
TTBW 정은지

특수영상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는 이번 대전특수영상영화제 포스터는, 서로 다른 영상을 하나로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특수효과 중 하나인 크로마키(Croma Key)를 모티브로 삼았다. 고전적인 이 영상합성 기법은 1940년대에 개발되어 90년대까지 특수영상 기술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비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영상 합성에 널리 쓰인다.

크로마키에는 사람이 가지는 색과 가장 대조를 이룬다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많이 사용된다. 이 초록색과 파란색은 모든 상상 가능한 가상의 세계로 치환될 수 있으며, 가상과 실재를 중첩시키고, 환상의 이미지를 현실로 불러온다. 포스터는 초록과 파란색의 크로마키 컬러가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변환되면서 일상의 현실을 넘어 환상 감각적인 세계로 몰입하는 과정을 담았다.

크로마키 컬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상상과 현실을 중첩시키는 기술이기도 하다. 현대의 수많은 특수효과와 영상기술들도 단순한 시각적 구현을 넘어 온전히 몰입하고 경험하게 하는 감각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머리속에 그리는 그 모든 이미지, 바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와 현재화된 미래가 공존하는 곳, 대전특수영상영화제가 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행사장

호텔 ICC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55
공간안내 | DFX 테크쇼·DFX 라운지(1F),
DFX OTT어워즈[OverTheTop](3F)
주차안내 | 호텔ICC 지상 1층, 지하 1층(무료 개방)
교통안내 | 지하철 정부청사역 4번 출구 하차 후 버스 환승
버스 618 스마트시티5단지 하차

상영관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
공간안내 | 안내데스크, 상영관(6F)
주차안내 | C게이트 입차 후 지하주차장 2-3층 이용
- 영화관람 후 매점 방문하여 주차정산 진행(3시간 무료 주차)
교통안내 | 지하철 정부청사역 3번 출구 하차 버스 환승
버스 606, 706, 707, 1001(신세계백화점 하차)

씨네인디U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
공간안내 | 안내데스크, 상영관(1F)
주차안내 | 기독교연합봉사관 주차장 이용
- 영화관람 후 극장 내 주차정산 등록(3시간 무료 주차)
교통안내 |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온 후 직진

소소아트시네마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61
공간안내 | 안내데스크, 상영관(3F)
주차안내 | 한남대 평생교육원 주차장(한남로51)
- 극장 내 주차권 구매 가능(4시간 1,000원, 6시간 1,500원)
교통안내 | 버스 105, 314, 711(한남대 하차)

대전아트시네마

대전시 동구 중앙로 192-1
공간안내 | 안내데스크, 상영관(3F)
주차안내 | 별도의 주차 공간 없음(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교통안내 | 지하철 중앙로 1번 출구로 나와 직진
버스 201, 202, 311, 313, 514, 613, 614(목척교 하차)
버스 202(대전역 하차)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

DFX OTT어워즈[OverTheTop]	10,000원
DFX 스크리닝(개막식, 폐막식 포함)	8,000원
DFX 테크쇼(사전 참가신청을 통한 신청 또는 현장 등록)	무 료
DFX 라운지	무 료

티켓 예매

온라인	11월 13일(목) 14:00~해당 행사 시작 전까지	
현장	첫 상영 전 1시간 전 ~ 해당 영화 상영관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까지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11월 27일(목)~ 11월 29일(토)
	씨네인디U	11월 27일(목)
	대전아트시네마	11월 28일(금)
	소소아트시네마	11월 29일(토)

- 온라인 예매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dfx.dicia.or.kr)에서
예매/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 티켓부스 티켓 발권은 당일 상영작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취소 및 환불

취소 시간	해당 상영 시작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 수수료	상영 당일 티켓 취소 시, 건당 1,000원 부과 (상영 전날까지 취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개인 사정에 의한 티켓 재발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분실, 훼손, 교통정체, 상영관 및 시간 착오 등

온라인 예매시 '모바일 티켓'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 상영 종료 후 티켓 발권 가능



▶ DFX OTT어워즈[OverTheTop]
DFX 스크리닝 예매 QR



▶ DFX 테크쇼
DFX 라운지 참가신청 QR

DFX OTT어워즈^[OverTheTop]

지난 1년 동안 공개된 영화·드라마시리즈를 대상으로, 특수 촬영·미술·소품·분장 등 영상의 특수효과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 작품의 감독, 특수 영상제작사, 아티스트(테크니션) 배우를 선정·시상하는 프로그램

DFX OTT어워즈^[OverTheTop]

일시 : 2025. 11. 28.(금) 19시

장소 : 호텔ICC 3층 컨벤션홀

내용 : 레드카펫(포토월포함), 축하공연, 특수영상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감독·테크니션·기업·배우 등 총 12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

식순

구분	시간	내용
식전행사	18:00-18:50	레드카펫&포토존(인터뷰) 내외빈, 관객 입장
	18:50-19:00	VIP&출연진 입장 및 지정석 착석
	19:00-19:20	오프닝영상 상영 내빈소개, 축사
시상식	19:20-19:50	기술상 시상(5개 부문)
	19:50-20:00	축하공연 1
	20:00-20:40	연기상 시상(5개 부문)
	20:40-20:50	축하공연 2
		대상 시상(2개 부문)
	20:50-21:00	기념사진 촬영
네트워킹 파티	21:00-22:30	수상자, 관계자



진행자 | 아나운서 공지영



진행자 | 배우 오지호



축하공연 1 | 케이스



축하공연 2 | 우디

수상작 후보



시상분야		내용	
기술상	대상	특수효과 및 시각효과를 예술성과 기술력으로 완성도 높게 결합하여 뛰어난 연출력을 선보인 감독, 특수영상제작사, 테크니션(아티스트)	
	시각효과상	영화	탁월한 시각효과 구현과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특수영상제작사, 테크니션(아티스트)
		드라마	특수영상제작사, 테크니션(아티스트)
	특수효과상	물리적 특수효과(SFX)를 혁신·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영화 또는 드라마의 표현 방식을 확장한 특수영상제작사, 테크니션(아티스트)	
미술상	프로덕션 디자인, 분장 등 미술 전반을 통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고 작품의 정체성을 강화한 테크니션, 미술팀 또는 기업		
심사위원특별상	특수영상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실험적 시도를 제시한 감독, 특수영상제작사, 테크니션(아티스트)		
연기상	대상	가장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연기자	
	최우수연기상 (남/여)	탁월한 연기력과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인 연기자	
	우수연기상 (남/여)	캐릭터의 감정과 서사를 안정감 있게 전달하여 극의 완성도를 높인 연기자	
	글로벌스타상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연기자	
	아시아영화인상 (개막식 수여)	아시아 권역에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K-콘텐츠의 아시아 내 확장성과 특수영상 산업의 국제적 가능성을 입증한 연기자	
	신인상	첫 연기 도전에서 두드러진 연기를 보여준 연기자	
	액션연기상	뛰어난 표현력과 기량을 보여준 스텐트 연기자	

영상산업 특성상, 특수영상 분야는 기술진의 기여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본 영화제에서는 이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헌신을 공정하게 조명하고 창작 의지 제고 및 특수 영상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000만 원 수여
기술 효과상	영화	500만 원 수여
	드라마	500만 원 수여
특수효과상		500만 원 수여
미술상		500만 원 수여
심사위원특별상		500만 원 수여

DFX OTT어워즈[OverTheTop] 심사위원



곽용수
인디스토리 대표이사



김인구
문화일보 문화부장



박진형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송경원
영화주간지 <씨네21> 편집장



양정화
크리에이티브망고 CCO/PD



이미정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전병원
동의대학교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교수

DFX 스크리닝

특수기술 관련 영화·드라마시리즈를 상영하고 감독·특수 영상제작자·영화 평론가와 함께 작품의 기술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

DFX 스크리닝



▶ DFX 스크리닝 예매 바로가기

일시 : 2025. 11. 27.(목) – 29.(토) / 상영시간표 참조
장소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씨네인디U, 소소아트시네마, 대전아트시네마
내용 : 각 섹션별 영화 상영 및 GV 운영

섹션 소개

FX레거시 | 'FX 레거시'는 특수영상 기술이 상상력을 어떻게 현실로 변환시켜 왔는가를 탐구하는 섹션으로, 올해는 1970년대를 조망한다. 국외 작품으로는 마이클 크라이튼의 <웨스트월드>(1973), 마이클 앤더슨의 <로건의 탈출>(1976), 스피버그의 <미지와의 조우>(1977)를, 국내 작품으로는 이만희의 <쇠사슬을 끊어라>(1971), 남기남의 <불타는 소림사>(1979)를 살펴본다. 'FX 레거시'는 오늘의 VFX·AI 시대에 다시 비추며,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는 대전특수영상영화제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어워즈 스포트라이트 | '어워즈 스포트라이트'는 한 해 동안 특수영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한국영화와 드라마시리즈를 조망하는 섹션이다. 올해는 작품성과 연출력, 기술적 완성도에서 한국 특수영상 제작의 현재적 성취를 보여준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2024), 김태곤 감독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2024), 김동철 감독의 <퇴마록>(2025)을 선정하였다.

특별전 | 올해 영화제 '특별전' 섹션은 영화제의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인 김동호 감독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미스터 김, 영화관에 가다(2024)>를 선보인다. 오랫동안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온 그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변한 극장과 영화의 풍경을 따라 한국과 아시아 각국을 여행하며 영화와 극장이 다시 연결되는 지점을 탐색한다. 그의 카메라에 담긴 기록은 한 영화인의 개인적 여정이자, 동시에 영화제라는 공동체가 스스로의 뿌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된다.

글 : 양정화 프로그래머

11/27(목)		11/28(금)		11/29(토)	
11:00		특별전 메가박스 대전신세계 5관		어워즈 스포츠라이트 메가박스 대전신세계 6관	
12:00		미스터 김 영화관에 가다		하얼빈	
13:00	FX 레거시 씨네 인디U	104분, GV	FX 레거시 메가박스 대전신세계 3관	114분, GV	FX 레거시 대전아트 시네마
14:00			FX 레거시 소사이트 시네마		
15:00	불타는 소림사 90분, GV	어워즈 스포츠라이트 메가박스 대전신세계 6관	미지와 의 조우 138분, GV	쇠사슬을 끊어라 95분, GV	로건의 탈출 120분, GV
16:00				어워즈 스포츠라이트 메가박스 대전신세계 6관	FX 레거시 메가박스 대전신세계 3관
17:00		퇴마록 85분, GV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96분, GV	웨스트월드 88분, GV
18:00					
19:00	개막식 메가박스 대전신세계 돌비관			폐막식 메가박스 대전신세계 3관	
20:00					
21:00	나혼자 프린스			중간계 61분, GV	
22:00	116분, GV				



▶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dfx.dicia.or>) 바로가기

나혼자 프린스

Love Barista



11월 27일(목), 19시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돌비관

한국 | 코미디 | 2025 | 116분 | DCP | 컬러 | 김성훈

[GV 안내] 사회자 : 전민준 | 모더레이터 : 양정화 | 게스트 : 김성훈 감독, 이광수 배우

'아시아 프린스'로 불리며 어딜 가나 특급 대우를 받는 배우 강준우는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확고히 휴가를 선언하고, 이국의 도시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다. 익숙한 언어와 체계가 사라진 공간에서 그는 다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여정에 놓이고, 바리스타 지망생 태오와 우연과 오해가 이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광수 배우의 역할과 연기는 마치 페이크다큐처럼 자연스럽고, 특유의 슬랩스틱과 진지함이 공존하는 연기로 '웃음 뒤의 인간'을 그려낸다. 낯선 문화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 타인과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성장의 드라마로 이어진다. 영화 <공조>와 <창궐>, 드라마 <수사반장 1958> 등에서 상업성과 탄탄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성훈 감독은 일상의 해프닝을 영화적 리듬으로 조직하며, 소동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감정을 포착한다. 영화의 대부분을 베트남 현지에서 촬영하며 베트남 현지 스태프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 양정화

중간계

Run to the West



11월 29일(토), 19시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3관

한국 | SF | 2025 | 61분 | DCP | 컬러 | 강윤성

[GV 안내] 모더레이터 : 양정화 | 게스트 : 강윤성 감독, 임형준 배우

각자의 목적이 있는 네 명의 인물이 장례식장에서 만난다. 그러다 납치된 상주를 쫓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들은 살아 있는 자도, 완전히 죽은 자도 아닌 채 '중간계'라 불리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한다. 강윤성 감독은 현실적 질감 위에 초현실적 이미지를 병치하며, 인간 존재의 불안전함과 구원을 시각적으로 탐구한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서사는, 생과 죽음의 이분법을 넘어 인간이 무엇으로 기억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한 VFX와 밀도 있는 액션 연출, 그리고 초현실적 색채가 결합된 이 작품은 생과 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독창적인 비주얼 서사로, 한국형 판타지 액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상업장편영화 최초로 실사와 AI 기술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작품이다. 크리처 구현과 폭파·붕괴 장면 등 주요 시각효과를 AI 기술력과 함께 완성했다.

- 양정화

미지와의 조우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11월 28일(금), 13시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3관

미국 | SF | 1977 | 138분 | DCP | 컬러 | 스티븐 스피버그

[GV 안내] 모더레이터 : 송경원 | 게스트 : 김성훈 감독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 인디애나 지역에 사는 로이는 우연히 UFO를 목격한 뒤 이 특별한 경험에 매료된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아내마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등 일상이 망가지지만 이 열망을 멈출 수 없다. 한편 전 세계 과학자들은 말콤 박사의 지휘 아래 외계인과 통신할 수 있는 음악 코드를 개발, 와이오밍에 있는 데블스 타워에서 외계인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정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독가스 유출을 핑계로 민간인들을 차단하지만 이를 믿지 않은 로이는 집요한 추적 끝에 데블스 타워의 위치를 알아내 그곳으로 향한다. 때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SF 역작 <미지와의 조우>는 호기심과 상상력이 불러오는 빛과 그림자를 심도 있게 조명한 심리 드라마다. 보이지 않는 것, 상상하기 힘든 것에 매료된 인물들의 여정은 마치 영화의 한계와 가능성을 가능하게 애정 어린 고백처럼 보일 정도다. 미지에 대한 경외 어린 상상을 음영의 이미지, 프레임 바깥의 존재, 음악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묘사한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인다. 특히 미지에 대한 공포가 아닌 교감에의 여정은 오감을 자극하며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 나간 SF-신화에 바탕을 둔 초현실적 체험이라 할 만하다.

- 송경원

웨스트월드

Westworld



11월 29일(토), 15시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3관

미국 | SF, 액션 | 1973 | 88분 | DCP | 컬러 | 마이클 클라이튼
[GV 안내] 모더레이터 : 양정화 | 게스트 : 전찬일 평론가

성인들을 위한 하이테크 테마파크 '델로스', 이곳에서 게스트들은 로마, 중세 유럽,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서부 시대를 선택하여, 로봇 '호스트'들을 상대로 폭력, 결투 등 모든 환상을 실현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호스트들은 게스트들을 향한 무자비한 사냥을 시작한다. 특히 윌 브리너가 연기한 검은 옷의 총잡이 로봇은 탈출 불가능한 공포를 상징한다. 마이클 크라이튼은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의 무책임한 욕망과 기술의 윤리적 상상력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인간이 창조한 것이 인간을 위협하는 순간을 다루며, 이는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에까지 이어지는 선구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 영화는 특수 효과 측면에서도 큰 획을 그었다. 세계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2D 이미지를 활용하여 로봇의 시점을 묘사하는 등, 초기 디지털 시각 기술의 역사를 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HBO시리즈 <웨스트월드>로 다시 확장되어, 인간의 의식과 인공지능의 자각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 양정화

불타는 소림사

Shaolin Temple on Fire



11월 27일(목), 13시 | 씨네인디U

한국 | 액션 | 1979 | 90분 | DCP | 컬러 | 남기남
[GV 안내] 모더레이터 : 민병훈 | 게스트 : 주성철 평론가

'가장 빠른 카메라잡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남기남 감독이 연출한 한국형 액션 영화 중 하나다. 주인공 백강호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을 죽인 원수가 진팔두라는 것을 알고 복수를 하기 위해 소림사를 찾아 나선다.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소림사라는 절에서 진팔두는 주지 행세를 하면서 온갖 흉악한 짓을 하고 있었고, 백강호는 고난 끝에 마침내 복수를 완수한다. 1970년대 후반, 홍콩 무협 영화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던 시기에 연출한 이 영화는 화려한 기술보다 배우의 신체와 현장 액션을 중시하며, 거친 질감과 단순명료한 이야기 구조로 하극상 장르영화의 개성을 구축했다. 남기남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작품성의 평가를 넘어, 산업화 초기 한국 영화의 생산 시스템과 대중 오락 영화의 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의 영화는 한 시대의 영화산업이 가진 활력과 노동, 그리고 장르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증언한다.

- 양정화

쇠사슬을 끊어라

Break Up the Chain



11월 28일(금), 13시 | 소소아트시네마

한국 | 액션 | 1971 | 95분 | DCP | 컬러 | 이만희
[GV 안내] 모더레이터 : 장승미 | 게스트 : 금동현 영화이론가

1967년 한해동안만 11편의 영화를 만들어냈던 이만희 감독은 갑자기 1970년에 들어 그 속도가 더더진다. 1971년에는 단 한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바로 사그라드는 유행의 끝물을 타던 '만주 웨스턴'물, <쇠사슬을 끊어라>다. 과거와 이후 작품들과는 달리 노골적인 오락물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인간과 체제, 자유와 구속이라는 감독 개인의 근본적 물음이 녹아 있어 가장 개인적인 영화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동시에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 특수효과의 개척자 이문길 감독이 참여했다. 실탄 없이도 총성과 폭발, 활극의 긴장감을 구현한 그의 기술은 오늘날의 화려한 CG나 AI 기술과는 다른 물질적 감각으로 영화적 리얼리티를 완성함과 동시에 '반공', '애국' 등의 당대 한국영화의 시대정신을 증언한다.

- 장승미

로건의 탈출

Logan's Run



11월 29일(토), 13시 | 대전아트시네마

미국 | 액션 | 1976 | 120분 | DCP | 컬러 | 마이클 앤더슨
[GV 안내] 모더레이터 : 강민구 | 게스트 : 이상미 키보드디스트

23세기, 인간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동은 컴퓨터가 완벽히 제어하며 인간에게 쾌락만을 제공하는 유토피아다. 주민들은 30세가 되면 '캐러셀'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 환생한다고 믿지만, 이를 거부한 소수는 돔 밖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탈출자를 제거하는 경찰, '샌드맨' 로건 5는 제시카 6와의 만남을 통해 탈출자의 대피처인 '성소'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는 '성소를 찾아내라'는 임무를 로건에게 부여한다. 영화는 미니어 처와 홀로그램으로 돔과 미래 도시, 캐러셀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며, 당시 SF 영화로서는 혁신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이러한 성취로 아카데미 시각효과상 특별상과 새턴상 최우수 SF 영화상을 받으며, 1970년대 SF 영화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았다.

- 강민구

퇴마록

Exorcism Chronicles: The Beginning



11월 28일(금), 15시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6관

한국 | 애니메이션 | 2025 | 85분 | DCP | 컬러 | 김동철

[GV 안내] 모더레이터 : 전병원 | 게스트 : 박지호(로커스 스튜디오)

이우혁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3D 애니메이션 영화. 김동철 감독은 대학 시절 졸업 작품인 <파노라마>로 2013년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학생 경쟁부문에 초청받았고, 첫 장편 영화로 선보인 <퇴마록>은 제57회 시체스 판타스틱 영화제 및 제48회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등 해외 우수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퇴마록>은 기존 국산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유혈 묘사와 점프 스케어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화려하고 자연스러운 3D CG 기술, 섬세한 캐릭터 디자인, 동서양 종교 요소가 결합된 음악과 음향 설계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SCREENX 확장 장면을 통해 3D CG 애니메이션의 장점인 자유로운 카메라 워크로 공간감 연출을 극대화하고 퇴마 의식과 액션을 웅장하고 실감나게 표현했다. 국내 성인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원작의 세계관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원작 팬과 신규 관객 모두를 포섭하고 있다.

- 전병원

하얼빈

Harbin



11월 29일(토), 11시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6관

한국 | 액션, 역사 | 2024 | 114분 | DCP | 컬러 | 우민호

[GV 안내] 모더레이터 : 광용수 | 게스트 : 김남식(메드맨포스트)

영화 <하얼빈>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룬 역사 영화로, 1908년 함경북도에서의 일본군과의 전투부터 1909년 10월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1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영웅적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역사의 상징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갈등과 숙명적 선택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감독 우민호는 영웅적 찬양보다는 인간 안중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사상과 감정의 변화를 미학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촬영감독 홍경표의 카메라는 광활한 실연과 이국적인 하얼빈의 풍경을 웅장하고 압도적인 영상미로 보여주고, 인물의 클로즈업에서는 필름 카메라 같은 깊이감과 선명한 질감으로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또한 시대 고증에 충실한 프로덕션 디자인과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는 작품의 사실성과 몰입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안중근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장면은, 영화 전체의 주제 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고요한 감동과 울림으로 남는다.

- 광용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Project Silence



11월 29일(토), 15시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6관

한국 | 액션 | 2024 | 96분 | DCP | 컬러 | 김태곤

[GV 안내] 모더레이터 : 송경원 | 게스트 : 강종익(엑스터 스튜디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탈출〉)은 제목 그대로의 재난 탈출 블록버스터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안개가 낀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대형 연쇄추돌 사고가 일어나 다리가 붕괴될 상황에 처한다. 때마침 정부에서 비밀리에 이송하던 군사 실험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개 실험체 'एको' 시리즈가 탈출하고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생명체가 사람들을 습격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각자 다른 이유로 공항대교에 갇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시작한다. 〈1999, 면회〉(2013), 〈굿바이, 싱글〉(2016)에서 연출력을 증명한 김태곤 감독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확장된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선명한 콘셉트를 향해 달려가는 〈탈출〉은 재난 액션 블록버스터답게 확실한 시각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거기에 제한된 상황이 주는 공포와 긴장감, 다양한 인간군상이 엮어내는 드라마가 더해져 이야기가 한층 풍성해졌다. 무엇보다 눈으로 보는 상상력이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뤄냈다. 우선 고립된 상황을 그린 안개 낀 공항대교의 생생한 묘사가 실감을 더한다. 무엇보다 실제 동물 연기로는 대체할 수 없을 실험체 에코 시리즈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표현은 실제 동물 연기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역동감과 깊이를 제공한다.

- 송경원

미스터 김, 영화관에 가다

Mr. Kim Goes to the Cinema



11월 28일(금), 11시 |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5관

한국 | 다큐멘터리 | 2025 | 104분 | DCP | 컬러 | 김동호

[GV 안내] 모더레이터 : 김인구 | 게스트 : 김동호 감독

'부산국제영화제'의 아버지 김동호 전 위원장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영화제를 운영하고, 작품을 심사하고, 영화인들과 고락을 함께해온 그가 이번엔 카메라를 직접 들었다. 몇 년 전 단편 '주리'를 만든 적은 있지만 장편 다큐멘터리는 생전 처음이다. 더구나 한 손에는 카메라, 다른 한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초보 감독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미수(米壽)의 나이도, 성치 않은 무릎도 문제될 것은 없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고 성장시켰던 열정과 노하우로 전 세계를 누비며 영화인들을 만나고 극장을 탐험했다. 카메라 앵글은 좀 흔들릴지 몰라도 캐스팅은 어마어마하다. 하긴 누가 김 감독의 인터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으랴. 임권택, 이창동, 정지영, 임순례, 강제규, 박찬욱, 봉준호, 김지운, 장준환, 김태용, 신영균, 심재명, 최재원 등 K무비를 이끌어온 감독, 제작자, 프로듀서들이 등장해 영화와 극장을 말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힘이 있다.

- 김인구

DFX 레크쇼

특수영상의 도시 '대전'에서 대한민국 특수영상을 이끌어 가는 SFX, VFX 부터 AI까지, K-콘텐츠 리더를 만나는 특별한 자리이자 최고의 테크 컨퍼런스

DFX 레크쇼

1일차 - AI



▶ DFX 테크쇼 참가신청 바로가기

일시 : 2025. 11. 27.(목) 13시 - 17시30분

장소 : 호텔ICC 1층 크리스탈볼룸홀

내용 : AI 테크쇼, AI 필름 쇼케이스

구분	시간	내용
AI테크쇼	13:00-15:00	AI 영상영화 콘텐츠 현재와 미래 MBC C&I AIXR 이상욱 팀장 상상하는 AI, 영상 크리에이터의 미래 (주)소이랩엑스 최돈현 대표
AI 필름 쇼케이스	15:30-17:30	AI 필름 쇼케이스 KAFA(한국영화아카데미) 첨단영화제작교육 AI 영화 작품 AI 필름 상영회 ① <낙하의 조각> 김운하 감독, 김보경 프로듀서 ② <벌레> 안상욱, 김민서, 백재령 감독 ③ <사구문> 유형준, 전예린, 홍진욱 감독 ④ <아틀란티스의 꿈> 최영민, 조형래, 최은경 감독 ⑤ <안개주의보> 박성원, 김선재 감독 관객과의 대화(GV) 진행 : 크리에이티브망고 양정화 PD 참석 : 박성원, 유형준, 최영민, 조형래 감독

※ 참여방법 |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dfx.dicia.or>)를 통해 참가신청

초청 강연자 소개



MBC C&I AIXR
이상욱 팀장

MBC C&I AIXR 콘텐츠팀장으로 시콘텐츠랩의 리더이자, 2024년도에 출범하여 국내외 시영화제 수상 배출과 시를 도구로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탐구하며 시특화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끌며, 방송·영상 산업의 선도



(주)소이랩엑스
최돈현 대표

클래시오브 클렌 아키에이지, 레이븐, 피파온라인 등 다수 게임의 시네마틱 제작. AI 비주얼 테크닉 / The AI GRAPHICS / The AI GRAPHICS : AI 영상테크닉 출간 및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RED SHOES> 제작



▶ DFX 테크쇼 참가신청
바로가기

일시 : 2025. 11. 28.(금) 13시

장소 : 호텔ICC 1층 크리스탈볼룸홀

내용 : VFX 테크쇼, AI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등

구분	시간	내용
(RISE사업) 세미나 - AI미디어 파노라마 한남대학교, 대전시청차미디어센터	10:00-12:00	AI활용 미디어 관련 사례발표 참석자 네트워킹
VFX 테크쇼	13:00-15:00	VFX에 적용되는 AI기술 M83 김준형 부사장
		드라마제작 AI활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제작 프로세스의 변화 스튜디오드래곤 서현석 팀장
		VFX 산업의 미래 :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기회 웨스트월드 손승현 대표
AI 영상콘텐츠 공모전 (상상을 실현하는 아이(AI)) 시상식	15:30-16:30	자유형식, 광고영상, 단편영상, 대상 각 6편씩 시상
AI 영상 쇼케이스	16:30-17:30	웨스트월드 프로젝트팀 해외수상작 상영

※ 참여방법 |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dfx.dicia.or>)를 통해 참가신청

초청 강연자 소개



M83
김준형 부사장

〈폭삭 속았수다〉, 〈노랑: 죽음의 바다〉, 〈스위트홈 2〉, 〈꽃선비열애사〉, 〈반도〉, 〈승리호〉 외 다수의 작품 제작 참여



스튜디오드래곤
서현석 팀장

〈신사장 프로젝트〉, 〈폭군의 세프〉, 〈스위트홈 3〉, 〈별들에게 물어봐〉, 〈환혼〉, 〈도적〉, 〈아라문의 검〉, 〈아일랜드〉, 〈커넥트〉 등 작품 제작 참여



웨스트월드
손승현 대표

〈다 이루어질지니〉, 〈파묘〉, 〈스위트홈 시즌1〉 등 150편 이상 제작 참여
제 18회 아시아 필름 어워즈 시 각효과상 〈파묘〉 외 다수 수상

DFX 라운지

2025년 대전에서 선정하고 육성해 제작한 '특수영상' 결과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수 있는 성과 전시회

DFX 라운지

일시 : 2025. 11. 27.(목) - 28.(금) 10:00 - 17:30

장소 : 호텔ICC 1층 크리스탈볼룸홀

내용 : 대전 특수영상 성과전시 부스 운영,

특수영상 기업 취업 상담 등

관람방법 : 자율 관람

섹션	내용
산학공동캠퍼스 ZONE	- 산학공동캠퍼스 - 참여대학 : 배재대, 우송대, 목원대, 건양대
특수영상기술 ZONE	- 특수영상기술발굴 및 상용화지원사업 기업의 성과 전시 및 기업 소개
플랫폼 콘텐츠 ZONE	- 숏폼드라마 제작 지원 작품 소개
신진창작자 ZONE	- 대전 소재활용 스토리 기획제작 소개
AI 영상콘텐츠 공모전 ZONE	- AI 영상콘텐츠공모전 수상 작품 소개 - AI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작품 소개 - AI 기초교육 인큐베이팅크루 1기 작품 소개
특수영상 전문인력 취업상담 ZONE	- 특수영상 전문인력 성과전시 및 취업 컨설팅 운영
이벤트 ZONE	- 포토 부스
릴렉스 ZONE	- 참여자 및 관람객 휴게 공간
특수분장체험 ZONE	- 특수분장 전시 및 체험
웹툰 팝업스토어 ZONE	- 웹툰 작가 전시, 굿즈샵



- 01 AI 영상콘텐츠 ZONE 02 플랫폼 콘텐츠 ZONE 03 특수영상기술 ZONE
04 신진창작자 ZONE 05 산학공동캠퍼스 ZONE 06 특수분장체험 ZONE
07 특수영상 전문인력 취업상담 ZONE 08 웹툰 팝업스토어 ZONE
09 AI 영상콘텐츠 공모전 ZONE 10 입구 웰컴 게이트 11 등록처

주최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dfx.dicia.or.kr

문의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특수영상콘텐츠팀
042-259-8603 / kse@dicia.or.kr

인쇄일
2025. 11. 21.

운영위원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은학 원장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
전일홍 국장

고문
김동호

집행위원장
김성훈

프로그래머
양정화

운영위원
김륜희 서현석 전우열
이미정 전병원 성낙원
김인구 전영범 박진형
유경숙 권용수 송경원

DFX
대전특수영상영화제
Daejeon Special FX Festival